

코로나19 후 세계 어떻게 변할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8만7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금(2020.4.8 기준)도 폭발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및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치료제의 미개발로 인해 대중적 요법으로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어 완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백신의 경우에는 적어도 개발하는 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지금으로서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코로나19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의 역할 지대함 깨닫다

가공화민인 코로나19의 위력에 지구촌의 많은 모습들이 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위축되어 대공황을 염려하고 있다. 세계적인 정치가이자 학자인 키신저는 이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연합뉴스 2020.4.5).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새시대를 계획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



오늘날 인간은 우주와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영적 각성이 요구된다

았다. 어떤 학자는 코로나19의 공격으로 국민들이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되자 방역국방이라는 개념을 창안하기도 하였다. 좋은 아이디어다. 국가가 어떤 방역시스템을 가동하는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홍콩, 대만, 한국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처럼 선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사망률이 치솟고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화장을 기다리는 관들이 즐비하게 늘어난 광경은 충격적이다. 그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 국가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 그를 비롯했지만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3월 26일 한국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라

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의료, 교육, 산업 등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다. 권오경(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5G 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과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중앙일보는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칼럼에서 "사회 분야에서 가장 큰 충격은 사람 사이 '관계'의 변화다. 종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이제 만나는 사람이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악수는 조심스러운 행위가 됐고, 끼이는 행동은 금기시될 것이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교육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대중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스포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화에 따라 온라인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미래 변화 7대 요소로 본 코로나19 이후의 세상)라고 예상했다.

세계적 영적 각성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 있었다. 출근시 약국 앞에 길게 늘어진 줄을 보는 것은 다반사였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 코로나19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삶의 본능에 기반한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마음먹는 대로 우주가 변한다는 '마음의 원리'를 설교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19 발생은 인간의 약한 마음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바이러스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차원의 학설을 감히 누가 알겠는가?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변화시키는 창조주이다(성경 시편 82편 6절, 민수기 27:16, 누가복음 20:38).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주와 만물이 변화된다.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약한 물질이 사람에게서 나와 우주 만물이 약하게 변하게 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물질이 나와서 선한 세계로 변화된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를 못 취하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 처방만 난무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빠른 대처와 정확한 처방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구세주의 영생학을 새롭게 배우고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石井歌
生命水 샘물이 出瀧出瀧 온 天下萬國에 다 통하네(생명수 샘물이 출렁출렁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毒惡邪氣運 吸受下者라도 此世에오면 不喪이요(독악사기운을 흡수한 자라도 이 세에 오면 죽지 않을 것이요) 利在石井天井水는 一次飲之延壽이요 飲之又 飲連飲者는 不死永生此泉일세.(이로운 하늘의 샘 성정수는 한 번 먹으면 나이가 연장되고, 연차적으로 마시고 또 마신 자는 불사 영생하는 이러한 샘일세)
아무리 무서운 괴질이 돌고 사망의 세력이 활개를 쳐도 이 샘에 와서 먹고 마시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위 예언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 모두 이 샘으로 달려가자!*

James Ahn(안준영) / 호주자부 책임승사

한국이 지구상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된다

마나 가슴 뿌듯한지 해외에서 사는 우리 교민들은 잘 아시리라.

특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의료장비를 요청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 놀라움과 함께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생각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지국가가 아니다. 그토록 부러워하던,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저 끼니때가 오면 배 터지게 먹고 잠을 늘어지도록 자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일까? 아니다. 마음에 고통이 없어야 한다. 마음에 근심걱정이 사라져야 진정한 잘 사는 거다.

마음에 평안이 깃들도록 가르쳐주시고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나의 스승님이 오늘따라 몹시도 보고 싶다.

앞으로 한국에 계속 풍년이 들게 하겠다. 한반도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한국에 여름 장마를 없애버리겠다. 남북 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등 한국이란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던 당신의 그 말씀이 이 미련한 사람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니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긴다.

조희성님(정도영)의 출현을 예언하고 무서운 괴질이 돌 것을 예고한, 격암유록

약 30년 전 가까운 친척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우리 세대에 한국이 지구상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반응은 싸늘할 정도가 아니었다. 얼굴 불살을 찌그러뜨리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신 좀 차리셔, 이 양반아"

미국대통령의 요청에 탄성 나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 모든 나라가 들쭉거리고 있다. 각국의 대처는 각양각색인데 한국의 의료적 대처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병원균이 몸속에 침투되었는지 알아보는 확진에 있어서 그 속도와 방법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는 타 국가의 그것과 비교 불가했다. 확진자를 특정한 장소에 격리시키고 발 빠르게 치료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멀고 먼 호주 시드니에서 그러한 한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1>
“의인에게는 생명의 빛, 죄인에게는 지옥 불”

조금만 있으면 구세주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은 곡선광선이므로 그림자가 없고 어둠과 밤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죄가 티끌만큼만 있어도 뜨거워서 못 견디는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은 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고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인고로 죄인들은

뜨거워서 못 견디는, 고통만 당하지 죽어지지 않는 무서운 지옥의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된 의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주는 빛인고로 그 빛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 죄가 조금 남았다 하여도 죄가 소멸되면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의 활력, 피의 조절 기능

모든 생명의 근원엔 물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물의 많고 적음, 수온(水溫)의 높고 낮음의 적절한 조절에 따라 생명체에게 이롭게 작용하기도 하고 해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흡사하게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피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절기능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많은 혈관이 발골에서 머리끝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 속의 피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해 인체의 체온 조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체 각 부분의 신진대사량과 몸 밖의 온도 차에 대응해서 혈관 내의 혈액을 순환시켜 체온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사람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피의 조절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체온조절을 담당한다고 해서 체온조절 중추가 혈관에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체온조절기구의 최고기

관인 체온조절 중추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추울 때 운동을 하면 근육의 수축작용에 의해 열이 발생하므로 그냥 있는 것보다 추위를 이겨내기가 쉬워집니다. 근육의 수축작용에 의해 발생한 열은 혈액에 의해 흡수되어 몸에서 열을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재분배됩니다.

변온동물은 그때그때 체온을 변화시켜 가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람은 온도가 일정한 정온동물이므로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체온이 낮아질 때 소름이 돋는 것은 피부표면을 통해 방출되는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며, 혈액은 뇌를 비롯하여 온도에 민감한 기관에 우선하여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기는 어디일까요? 왜 어떤 환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코로나19의 공격을 이겨내고, 왜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병이 전개되는 것일까요?

잘 모르는 분이 많겠지만, 신장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혈액 상태를 만들고 잘 순환하도록 조절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혈류에 있는 모든 노폐물과 필요 이상의 영양성분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피의 정상적인 조절기능을 신장이 제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신장이 하는 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 세 번째 중요 조절기능이 잘 작동되어야 면역력이 극대화되어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본부제단 3월 성적 1등 4지역 개인 1등 석선자 권사



4지역 이영애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 지회장: 이영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지회장: 석선자)

- *구역 1등: 53구역(구역장: 석선자) 2등: 56구역(구역장: 김순자) 3등: 37구역(구역장: 이영애)

본부제단(윤봉수 신도회장)은 4월7일 구역장회의를 주최하고 3월 성적을 발표 후 시상하였다.

- *개인 1등: 석선자 권사
- 2등: 이영애 권사
- 3등: 김순자 권사(6지역)*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